

“봉사활동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사내 봉사단체서 연탄배달 등 사랑 나눔 사회복지시설 시설물 무료정비 등 귀감

■ 민인식 대창한마음회이사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거나 지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대창한마음회 민인식 이사(59)는 봉사활동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즐거운 일을 해서인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한번도 힘들거나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1970년대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해, 지난 1989년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북부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게 된다.

북부모범운전자회는 광주에서 행사

가 있을 때나 명절을 전후해 지역 곳곳에서 차량통제 봉사활동을 한다.

민 이사는 북부모범운전자회에서 오랫동안 회원으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후 버스운전자격을 가지고 있던 민 이사는 지금은 없어진 나산클래프 셔틀버스 운전사로 1년여간 근무한 후 대창한마음회에 2001년 입사하게 됐다.

대창한마음회는 민 이사가 입사하기 전부터 대창한마음회라는 봉사단체가 비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민 이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단체



에 가입한 뒤 온갖 봉사활동을 펼치며 회원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대창한마음회는 현재 56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2개 조로 나눠 28명씩 정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

말이면 저소득층 연탄배달 봉사활동부터 시작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관리를 유지하고 사랑의 밥차 차량운전 등을 하고 있다.

대창한마음회에 가입한 회원들 상당수는 민 이사처럼 평생 운전만 해온 회원들도 있지만 목수, 벽돌공이, 전기설비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봉사단체 회원들은 이런 기술로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의 각종 시설물을 무료로 정비해주고 있다.

민 이사는 “봉사의 즐거움을 알고 있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는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며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사랑의 밥차를 찾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잊고 지냈던 행복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바쁘게 앞만 바라보며 사는 것도 좋지 만 진정한 행복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변의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하나씩 해보는 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남부경찰서, 불법촬영 근절 활동
광주남부경찰서(서장 강철원) 양림파출소는 최근 광주공원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곳을 점검하고,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몰카’ 근절 활동을 벌였다.



영암소방서 에벤에셀 유치원 소방교육
영암소방서는 19일 에벤에셀 유치원 원생 30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119신고방법 및 대피요령, 어린이 방화복 착용, 물 소화기 체험 등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늘 동경하던 꿈의 무대...꿈만 같아”

전주대사습 명창부 장원에 이지숙씨

“늘 동경하던 꿈의 무대에서 장원을 차지하다니 꿈만 같아요.” 제4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에서 이지숙 씨(33·여)가 장원을 차지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본선 경연에서 판소리 심평가 중 ‘주과포혜’ 대목을 구성지게 불러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주과포혜는 수족이 되어주던 객씨부인의 죽음으로 불쌍한 처지가 된 심방사를 묘사한 대목이다.

이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리 공부를 시작한 ‘판소리 신동’이었다.

중학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웠고 국립남도국악원을 거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수학했다.

전북대 한국음악학과에서 이일주 명창을 만나 판소리 다섯바탕 중 적벽가를 제외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를 배웠다.

결혼과 출산 이후 ‘슬럼프’를 겪었던 이씨는 장원 발표와 동시에 흘린 많은 눈물의 의미를 ‘꿈의 무대’에서 찾았다.

“과거 전주대사습놀이를 지켜보면서 꼭 장원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이 있었다”며 “예선 통과, 점수 발표 내내 서있었던 이 자리가 내겐 너무도 영광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아버지가 내 뒷바라지를 많이 했는데, 은혜에 보답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소리 공부에 매진해 우리 소리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게 웃었다. /연합뉴스



목포대, 청년 위한 특별한 행사 ‘청와대’

청춘강연회·테이블토크소통의 장 마련

목포대학교 ‘뜨거운 상징’이 최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 정상목 국제컨퍼런스룸에서 ‘제1회 청춘, 와인, 대화가 있는 곳, 청와대 행사’를 개최했다.

‘뜨거운 상징’은 목포대 재학생 이찬술(미술학과 3년), 박현정(관광경영학과 2년), 주희승(2년)으로 구성된 학생 자체 문화기획 팀으로 이번 행사 역시 학생들이 직접 문화행사로 기획했다. 목포대 학생들 중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이 또래 학우들에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청춘강연회로 영무새 전문가 이찬술(영무새 트레이닝센터, 스피크 대표) 강연자와 웹툰 작가 류형선(KTOON ‘해프닝 해

프닝’ 연재 작가) 강연자가 자신의 꿈이 이뤄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다.

2부는 와인과 함께하는 테이블 토크쇼로 진행됐다. 와인을 마시며 취연, 연애, 창업, 예술, 여행, 인간관계 등 청년들이 고민하는 6가지 키워드 각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있는 6인의 멘토와 이야기하는 코너로 열렸다.

‘청와대’를 기획한 문화기획 팀 ‘뜨거운 상징’ 박현정씨는 “청춘에 의한 청춘을 위한 청년 행사인 ‘청와대’는 우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청춘들이 청춘에게 고민을 터놓고, 서로의 미래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며 “청춘들이 학벌·성적 등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큰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강성우 기자



광산구 공공일자리 참여자 대상 ‘전직 스쿨’
광주 광산구는 18~19일 구청에서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직 스쿨’을 실시했다.



금타 노사, 경영정상화 합의 이끈 광주시에 감사패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상화를 결정짓는 ‘노·사·정-채권단’ 합의안 타결을 도출하는데 끝까지 노력한 광주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대진 금호타이어 부사장과, 조광조 광주공장장, 노동조합 조삼수 대표외 회장, 정승강 곡성공장 지회장 등 노사 대표는 18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사는 감사패에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증재해 준데 대한 감

사의 뜻을 담았다.

지난 3월30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결정짓는 ‘노·사·정-채권단’ 회의가 4시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다.

법정관리 갈림길에 선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윤 시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오후 8시57분께 중국 더블스타 해외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 광산구 보훈가족 위문...생필품 전달

광주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를 비롯한 동 사회단체들이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을 위문,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렸다.

우산동 지사협은 19일 보훈대상 가정 20세대를 찾아 삼푸 세트와 쌀 10kg을 각각 전달했다. 신창동 지사협은 국가유공자 가족을 포함한 돌봄 이웃 10세대에 여름이불·세제·잡곡 등 총 100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건넸고, 송정2동 지사협과 주민자치위원회도 6·25참전유공자 12명 집을 방문 여름이불을 전달했

다.

각 동별로 광산구 보훈의 달 행사는 이어진다. 수완동 지사협은 22일 경북 칠곡으로 ‘보훈가족 전직지 순례’를 떠난다. 어룡동 기관단체협의회는 25일 ‘6·25 참전용사 증촌제’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날 평동 사회단체협의회와 점단1동 지사협이, 26일에는 하남동과 분방동 지사협이, 이달 안으로 월곡1동 지사협과 도산동 주민자치위원회도 각각 보훈 행사를 열 계획이다. /윤영복 기자



도교육청 DIY동호회, 천연비누 만들기
전남도교육청 DIY 천연비누만들기 동호회는 최근 한방테라피 비누, 삼푸비누, 기능성 모이스춰 스킨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인사**
- ◇ 고등검사장급 승진 ▲ 광주고검장 박군택
 - ◇ 고등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차관 김오수 ▲ 법무연수원장 조은석 ▲ 서울고검장 박정식 ▲ 대전고검장 이금로 ▲ 대구고검장 김호철 ▲ 부산고검장 황철규
 - ◇ 검사장급 승진 ▲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문찬석 ▲ “강력부장 권순범 ▲ “공판송무부장 김후곤 ▲ “과학수사부장 조남관 ▲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홍 ▲ 부산고검 ▲ 박성진 ▲ 광주고검 ▲ 장영수 ▲ 청주지검장 여환섭
 - ◇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강남일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 “ 연구위원 최종원 ▲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승권 ▲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성운 ▲ “ 형사부장 구본선 ▲ 서울동부지검장 한찬식 ▲ 서울남부지검장 권익환 ▲ 서울북부지검장 김영대 ▲ 서울서부지검장 이동열 ▲ 의정부지검장 양부남 ▲ 인천지검장 김우현 ▲ 수원지검장 차경환 ▲ 춘천지검장 고기영 ▲ 대전지검장 조상철 ▲ 대구지검장 박운해 ▲ 부산지검장 김기동 ▲ 울산지검장 송인택 ▲ 창원지검장 이정희 ▲ 광주지검장 배성범 ▲ 전주지검장 윤용결 ▲ 제주지검장 송삼현